

국가별 동향



미 국

‘초콜릿 닭튀김’ 나온다



‘초콜릿 닭튀김’이 출시 전부터 화제다. 초콜릿 향이 가미된 특제 소스를 사용한다는 ‘초코 치킨 전문점’은 3월 미국 LA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간장, 고추장 등 우리에게 친숙한 소스를 비롯해 수많은 소스가 닭 튀김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초콜릿을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 ‘초코 치킨 출시 소식’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벌써부터 치킨 요리를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초코 치킨을 개발한 식당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음식과도 다른 종류가 될 것”이라 자신한다. “전통적인 닭 튀김도 아니고, 초콜릿에 직접 담근 닭고기 요리도 아닐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직접 맛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 관계자는 자신한다. 초코 치킨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다. 하지만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악의 음식’ 즉, 최고로 살을 찌게

만드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아닐까, 벌써부터 걱정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팝뉴스]

상한 계란 알려주는 에그 마인더



지난해 미국에서 첨단전자제품 애호가들은 가장 특이한 선물로 에그 마인더를 뽑았다. 에그 마인더는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돼 LED 조명을 장착한 트레이 안에 담긴 계란 중 상한 계란을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개당 약 74,000원이며 이밖에도 전화장갑, 토스트 인형 무선 스피커, 스카우트 와이파이 애완동물 모니터, 개인 잠수함, 좀비 종말 비상용품 등이 뽑혔다. [뉴시스]



중 국

닭 운송트럭 전복돼 中 고속도로 아수라장

중국에서 트럭이 전복되면서 닭 수천마리가 고속도로를 점령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허핑턴 포스트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의 고속도로에서, 닭 3,000여 마리를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또 사고 현장을 담은 1분 40여초 분량의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농장으로 착각 할 정도로 많은 닭들이 고속도로를 차지하며 난장판을 이룬다. 사고 운전자는 물론 현지 경찰까지 동원되어 사태를 수습해 보지만 여의치 않은 눈치다. 그런가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도망치는 닭들이 알뜰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허핑턴 포스트는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안개가 짙게 낀 구역에서 브레이크를 밟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으며, 이 사고로 쏟아져 내린 닭 3,000여 마리 중 900여 마리는 달아났다고 CCTV(중앙방송국)의 말을 빌려 전했다. [서울신문]



호 주

몸은 팽개친 채 ‘닭 대가리만 가져간’ 도둑

호주에서 몸은 놔둔 채 닭대가리만 잔인한 방법으로 떼어간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

을 주고 있다. 호주의 헤럴드 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 인근의 워벌리 산 자락에 사는 한 가족은 최근 벌어진 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다. 뒷마당에서 기르던 닭들이 대가리가 잘린 채 몸은 앞마당에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을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닭들의 대가리는 모두 가져갔다는 점이다. 경찰은 잔인한 사건의 범인을 쫓고 있다. 현지 경찰인 네이던은 “범인은 닭 6마리를 길 건너에 있는 건축부지로 가져가, 닭장의 문을 잠그는데 주로 사용되는 돌맹이로 대가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계속 내동댕이쳤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중처벌이 가능한 동물 학대다”라고 말했다. 또 “닭의 주인 가족은 왜 자신들이 목표가 됐는지 의아해 했다”며 “그들은 법을 준수하는 지역민이고 어떠한 좋지 않은 일에도 연루되지 않았다. 정말이지 기이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증인이 나서주길 호소했다. [노컷뉴스]



인도네시아

양계사료가격 인상

인도네시아 양계사료업체가 지난 1월 중순부터 가격을 인상했다. 인도네시아 사료협회 Desianto Budi Utomo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옥수수과 대두를 거의 수입하고 있다. 미국 달러 대비 루피의 약세로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고 했다. 육계사료 기준으로 볼 때 kg 당 0.41~0.45달러(USD)에서 0.51~0.53달러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asian-agribiz] 양계